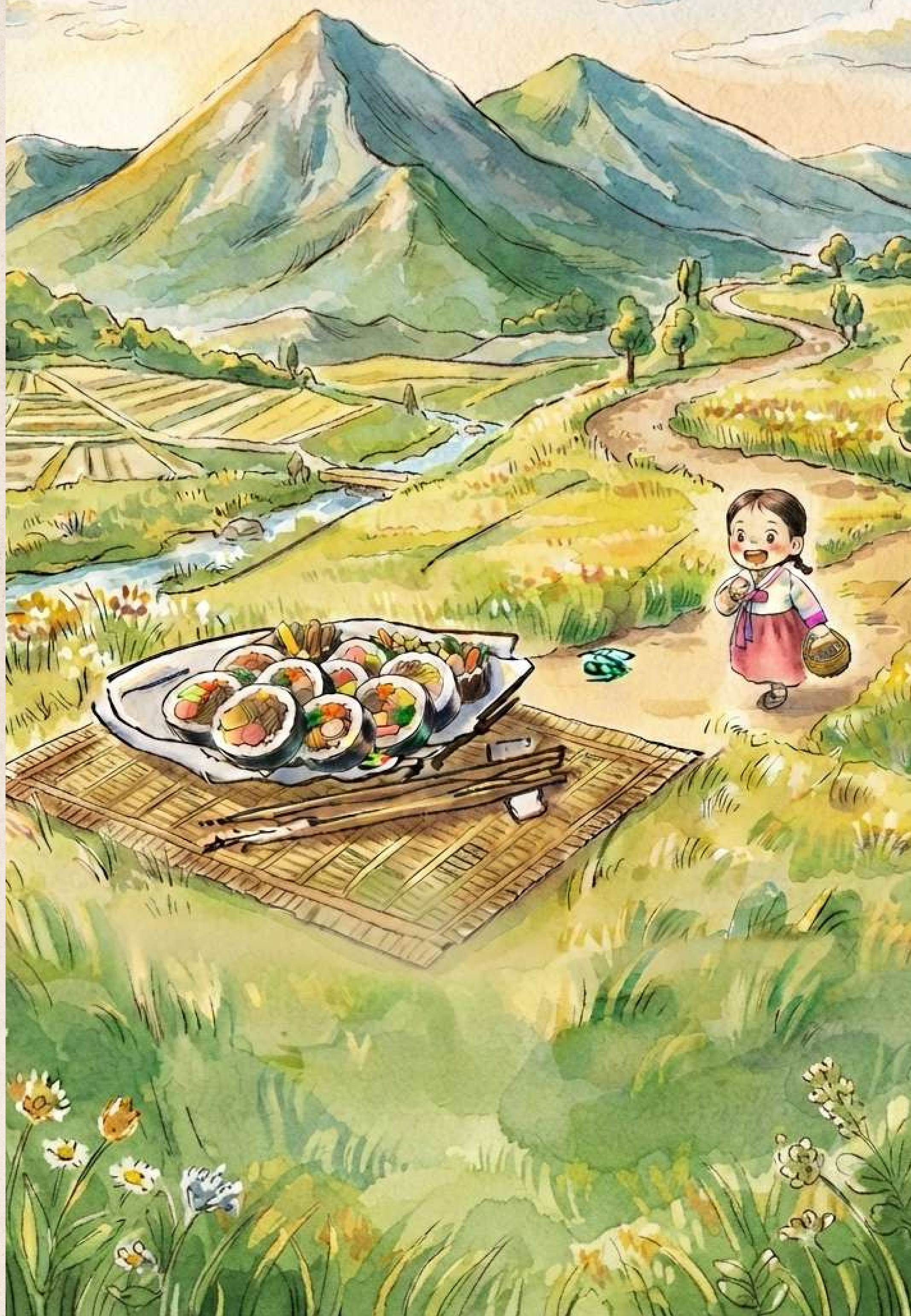


우렁각시와 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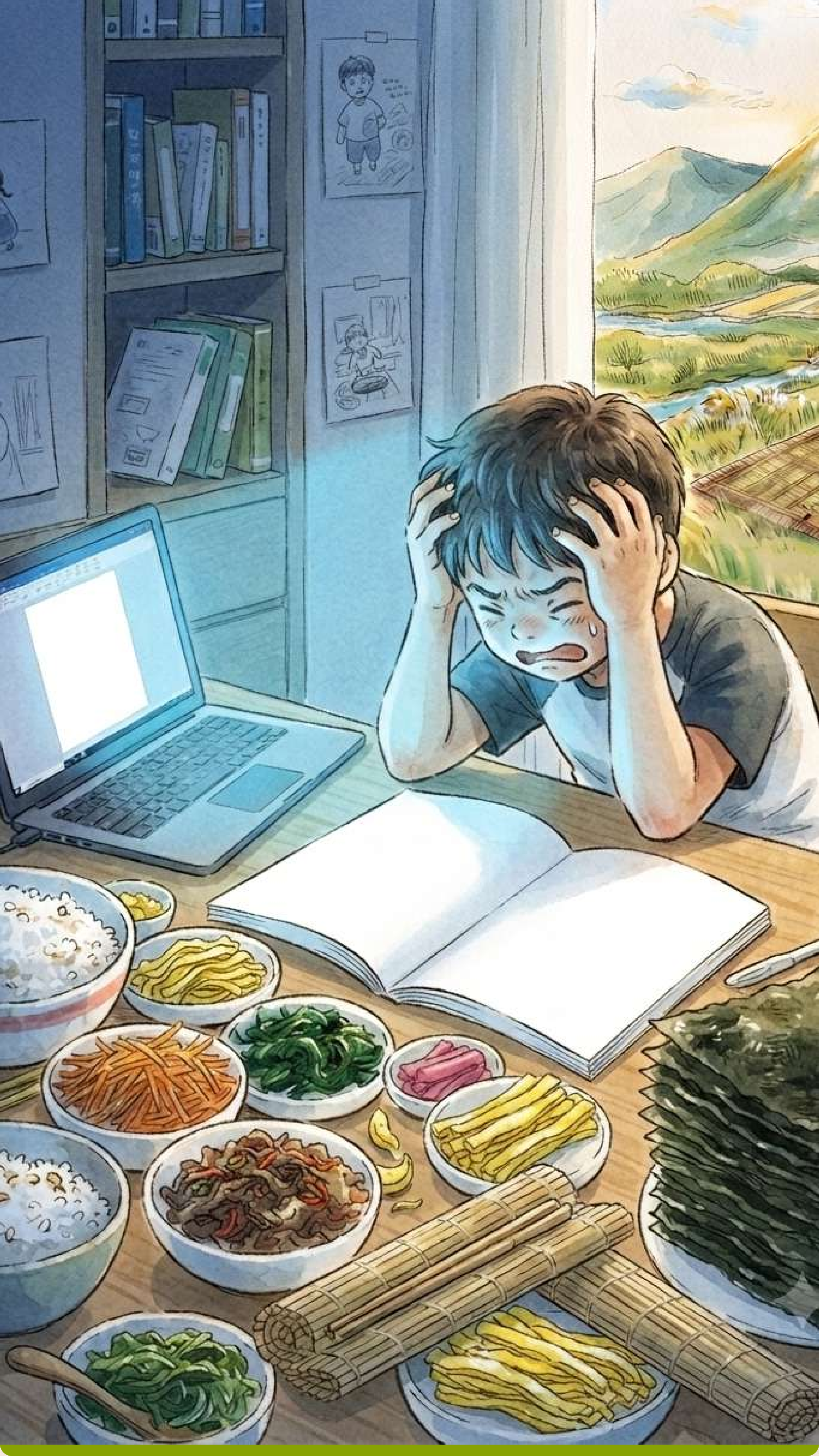
작가 프로필



따스한 햇살이 드는 부안의 작업실, 붓을 든 동화 작가님의 따스한 눈빛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작가님은 이제 부안의 평온한 풍경 속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향처럼 편안하고 꽃처럼 향기로운 이야기들을 그림 속에 담아냅니다. 사랑하는 강아지 뱅크와 함께하며 얻은 영감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또 다른 멋진 모험이 됩니다. 오늘도 작가님은 뱅크와 함께 세상 가장 행복한 동화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5월부터기획,7월완성

최정숙



1장: 한숨만 푹푹

민수의 책상 위에서 노트북이 파란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
얇게 펼쳐진 숙제 노트 앞에는 산
더미처럼 쌓인 김밥 재료들이 덩그
러니 놓여 있었지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이고, 김밥 싸기가
보통 일이 아니네. 진짜 되네(힘드
네)!







원본 동화 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원본 이야기 요약

부안 사투리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원본 이야기 요약

원본 동화 이야기

동화는 짝수페이지 이어야 합니다. 주의~~~!!

원본 이야기 요약

원본 동화 이야기

마지막장에는 추천사:)

고치지 않기